

내러티브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교육전공

20253086 도혜진

5월 6일

교육실습 첫날,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으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음악연극과 1학년 2반 학생들과 처음 마주했을 때, 너무 떨렸었는데 학생들의 밝게 맞이해 줘서 너무 고맙웠다. 아직은 많은 것이 낯설고 긴장 되지만 학급 운영 방식과 학교 교육과정 및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과 수업 지도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된다. 앞으로의 이곳에서의 5주가 나에게 큰 배움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5월 8일

연수가 다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수업 참관이 시작되었다. 먼저 음악연극과 2·3학년 전공 수업부터 참관해 보았는데 예술고등학교답게 체계적이고 신체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다. 일반 교과 수업과는 다르게 에너지와 집중 방식이 흥미로웠다. 학생 개개인의 특징이 드러나는 만큼 교사의 역할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조율자라는 점을 느꼈다. 수업 중 학생들의 반응을 기록하며, 향후 나의 수업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 봐야겠다.

5월 12일

오늘은 1학년과 3학년의 부전공 수업에 참관을 들어 갔었는데 전공 수업 외에도 연극 전공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갖춰진 수업으로 짜여져 있고 좋은 선생님이 진행 되는 모습을 보니 미리 대학교 생활을 경험하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껏 즐기며 꿈을 향해 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니 너무 이쁘고 부러웠다.

5월 13일

갑작스럽게 수업 시연을 공동으로 맡게 되었다. 교육대학원에서 전공 수업 때 시연해 보았던 주제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보았는데 예술고등학교 학생답게 습득력이 좋고 잘 따라왔다. 학생들에게 헛갈리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피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는 명인기림의 날로 경연대회가 열리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2·3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년의 뽑힌 대표들이 나와 경연하는 날인데 음악연극과 뿐 아니라 한국음악과, 무용과 등 타과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여기가 왜 전통예술고등학교인지 정체성을 알려주는 시간이였다. 가야금과 아쟁, 거문고, 판소리, 민요, 정통무용, 창작무용 등 평소에 잘 접할 수 없는 우리의 음악을 접하게 되니 너무 새롭고 즐거운 시간이였다.

5월 19일

상담을 통해 반 학생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아침 조회시간 전, 점심시간, 종례 후 원하는 시간대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니 지금 학생들의 관심사와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전국권 학교다 보니 기숙사 생활 및 자취하는 학생들과 멀리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통학하는게 힘들다는 것과 다른 친구들에 비해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비교가 된다.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아직 1학년이고 예술고등학교에 들어 온 것 자체가 한걸음 먼저 내딛은 시간이기때문에 해답을 주기 보다는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 주었다.

5월 20일

단독으로 하는 첫 수업시연이 해 보았다. 50분 수업을 A반, B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는데 무엇보다

다 시간 분배가 잘 되지 않았다. 첫 수업이다 보니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주느라 시간이 초과하여 앞에 반은 활동 하나를 하지 못하고 끝났는데 각 반의 다른 에너지에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진행을 잘 해야 하는지 다시한번 인지 할 수 있는 시간이였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월 21일

오늘은 마당놀이 행사가 있는 날이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오전 시간에는 각반 학생들의 장기자랑으로 진행이 되었다. 원래는 야외공연장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이였지만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아쉬움도 잠시 학생들은 신나게 행사를 즐기고 있었다. 마음껏 각자의 반 모습을 뽐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우리 1학년 2반 친구들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 변경 사항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점이 하나도 안 보일 만큼 무대에서 너무 잘해 주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각 반이 운영하는 부스 체험이 진행 되었는데 놀이기구, 사파리, 타로집, 아이스크림 가게, IMAX 영화관, 오락실 등 각반이 축제의 장으로 변하여 이곳저곳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교생 선생님한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

5월 27일

50분 수업시연에 이어서 오늘은 100분으로 2차시 수업시연을 하였다. 지난번에 했던 감정표현을 조금 더 확장하여 감정훈련으로 진행 하였는데 걱정스러웠던 시간 분배는 잘 진행이 되었다. 학생들 한명한명 각자의 개성과 해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발표가 인상적이었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모습에서 예술 교육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느꼈다. 지난 시간에서도 느꼈지만 예술고등학교인 만큼 수업은 훈련하는 법과 결과를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느꼈고 앞으로 전공 과목을 더 공부해서 어떤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더 많은 고민하고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1일

오늘은 총평회가 있는 날이다. 마지막날이 아닌 조금 이른 총평회였는데 담당 선생님과 모든 교생 선생님이 모여서 소감을 발표하는데 마음이 쩡하였다. 아직 며칠 실습기간이 남았는데 빠르게 지나 간 시간이 너무 아쉬웠다. 교육실습 면제가 되는 나는 고등학교 교육을 접하고 싶어서 자진해서 실습에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많은 업무량으로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하고 그 생활에 익숙해 지면서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학교 가는 걸 즐거워 하며 하루하루를 온마음을 다해 열심히 임하였다. 특히 모교 출신이 많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혹시나 태도로 흠 잡힐까봐 더 긴장하고 경직 되면서 지냈는데 나에게 많은 걸 안겨 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실습시간이 아쉽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마무리 하고 싶다.

6월 2일

지도교사 선생님과 학과 선생님께 수업 피드백을 받았다. 나의 수업에서 잘한 점과 보완점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였다. 예술고등학교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연극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업을 더 깊이 있게 단계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

6월 4일

마지막 날, 학생들과 아쉬움이 가득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나랑 얘기를 많이 안한 친구가 더 아쉬워하고 슬퍼해 줘서 많은 생각이 교차

가 되었다.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실습 기간동안 많은 걸 알려주신 지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 그리고 전통예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교육실습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예술 교육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실습을 마무리하고 학교를 나섰다.